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2015. 3. 31



이화여자대학교

【 목 차 】

I. 「2014 공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연구」 결과 개요	1
II. 본교 2015학년도 전형 분석 결과	3
1.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 여부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3
가. 논술고사	3
나. 면접고사	7
다. 실기고사	9
라. 수능	9
마.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필답고사	11
2. 본교 입학전형 요소의 고교 교육과정 내 평가여부 분석	12
가. 본교 전형별 서류평가 현황	12
나. 본교 전형의 고교과정 내 평가여부 분석	14
III. 대학별 고사 문항 공개	20
1. 논술 고사(별도 파일 첨부)	20
2. 재외국민 고사(별도 파일 첨부)	20
참고문헌	21

※ 본 결과는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연구(2014년)」에서 일부 발췌함.

I. 「2014 공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연구」 결과 개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시행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국가교육 정책에 부합하는 대학 입학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교육정책은 현장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그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황준성, 2013),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을 연구에서 접목하였으며,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연구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장: 선행학습 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선행학습 경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학습의 교육적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 차원의 법적인 시도가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행학습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실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 본다면 근본적인 원인에 부합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선행학습을 받지 않고도 교육성장에 주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구축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본교 고교-대학 연계 고교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교재학생, 본교 입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크게 5가지 질문(1. 선행학습 경험여부 2. 선행학습 시기 3. 선행학습 종류 4. 선행학습 이유 5. 선행학습 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다.

2장: 사교육 의존도 실태 분석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대입과 관련하여 사교육을 경험하는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전형 유형에 따른 주요 전형요소를 크게 학생부교과, 수능, 서류, 면접, 논술로 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대상은 1장과 동일한 대상이며, 크게 2가지 질문(1. 전형 요소별 사교육 현황 -전형요소별 사교육 경험여부, 전형요소별 사교육 종류, 사교육시간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전형 요소, 사교육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전형요소, 전형 요소별 사교육 시간 및 비용 평균 비교, 2. 학교 유형별 사교육 현황 -학교 유형별 사교육 경험 여부, 학교 유형별 사교육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전형 요소, 학교 유형별 사교육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전형요소)을 제공하였으며, 유사 항목에 대하여 입학생, 입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장: 본교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본 장에서는 본교 2015학년도 제반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를 목적으로 진행된 본교의 절차적 노력과정과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연계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특히 본교 대학별 고사와 관련하여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출제-평가-결과피드백의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본교 2015학년도 입학전형의 고교교육과정 연계 관련 건전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입학전형 개선안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대학별 고사 문항의 경우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문항에 대한 질의,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4장: 공교육 중심의 평가요소 타당성 검증

본 장은 본교가 사교육 영향평가를 주제로 실시하였던 초기 연구문제를 지속해 온 것으로서 (윤석현 외, 2014) 우리나라 교육활동을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치적인 구조로 이해하기보다는 공교육의 교육적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생 평가는 수험생이 고교에서 경험한 교육활동을 근거로 우수성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높은 활동은 그것의 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에서 배제 또는 약화시키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과 동일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환원하면 사교육을 많이 받는 교육활동 모두를 학생평가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교육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찾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교육 유발 요인이 높다고 하여 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학교 활동 기록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학생활동을 분류하고, 이에 관한 평가요소로서의 타당성 정도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공교육 중심의 교육활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중 3장의 내용은 우리대학 입학전형의 고교 교육과정 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설명하는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9월 12일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대학 내 입학전형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를 기반으로 전형운영의 주요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대학별 고사 출제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구체화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점검하는 단계를 둬으로써 입학전형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점검 과정을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전형 설계 및 운영의 건전성은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사교육 영향력을 잠재우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능이 교육과정적으로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향한 목표로 귀결될 수 있도록 각 교육 주체들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교는 고교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우수인재 선발이라는 당면 목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본교의 입학전형이 고교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도록 평가가 교육과정을 선도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결과로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 간의 선순환의 흐름을 끈고히 하는데 대학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민을 이어가고자 한다.

II. 본교 2015학년도 전형 분석 결과

선행학습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본교의 전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교는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 유형 중 논술고사와 면접고사, 실기고사, 필답고사 등 총 4개의 유형의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였다. 이 중 면접고사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바탕으로 종합평가하는 일반면접으로 진행하였고, 실기고사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학별 고사 유형 중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여부를 분석하였다.

〈표 1〉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대학별 고사(논술) 현황

대학별 고사 유형	운영 여부	선발 인원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고
논술	○	600	○	학생부교과 30% + 논술 70%

1.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 여부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가. 논술고사

■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 여부 자체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논술고사 출제위원회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들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인문계열 I의 논술고사는 언어영역에 중점을 둔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어 제시문 1개가 포함되었다. 인문계열 II의 논술고사에서는 언어영역 2문항 및 이와 연관된 사회과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1문항이 포함되어 총 3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논술응시계열 [인문 I]

인문계 논술은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여 모두 3개의 제시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되었다.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육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도록 주제선정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인간됨의 본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성찰적으로 이해 및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따라서 평소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를 현실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응용해 온 학생들이라면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도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인문계열 I의 경우 ‘인간 본성’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인간성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과 기계 또는 로봇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과연 인간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진화론적 동물해방론이 인간 본성을 성찰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에 대한 제시문들이 출제되었다.

2) 논술용시계열 [인문 II]

인문계열 II의 경우 권력의 정당성, 소규모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대립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분석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 해독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논술용시계열 [자연 I, II]

자연계열 논술의 문항들도 고교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이차곡선, 도형의 면적, 수열, 수의 성질, 삼각함수, 도형의 면적, 미분, 적분, 함수의 극값 등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물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에서는 이차곡선의 개념과 원리에 따라 함수를 구하고 그 함수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수열을 일반항을 유도하고 조작적 경험으로 얻은 수열의 성질에 따라 수열의 성질을 논리적으로 보이는 문제와 그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변곡점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정적분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 고교 교과 과정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한 문제들로 고교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수학적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조작적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 여부 평가결과 (수험생 출구조사 결과)

본교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본교 논술고사에 참여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교 논술고사에 참여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교 논술전형에 지원한 18,397명의 수험생 가운데, 고사를 마치고 퇴실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188명을 무작위로 접촉하여 질문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출신고, 지원전공, 졸업유무 등 수험생의 간략한 개인정보와 논술고사의 난이도, 고사시간의 적절성, 기출문제 및 모의논술과의 난이도 비교, 타 대학 논술고사와의 비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계열별과 고사장소를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문계열 I 59명, 인문계열 II 52명, 자연계열 I 61명, 자연계열 II 16명 등 188명에게 물어본 논술고사의 난이도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게 무난하게 출제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0명으로 이는 80% 정도에 해당한다. 고사시간은 적정했거나 5~10분 정도 부족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학년 초에 제공했던 모의논술고사 문제의 난이도와 유사했다고 느낀 수험생들이 대다수였다. 이는 논술출제위원회의 출제의도 및 자체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본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교 추수지도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 중 본교 논술고사에 참여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논술)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수는 27명이었으나, 정시 합격생 중 논술고사에 참여한 학생의 수까지 총 84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표 2> 본교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 출제 정도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6	7.1	
보통이다	26	31.0	
그렇다	37	44.1	
매우 그렇다	15	17.9	
합 계	84	100.0	

본교 논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약 93%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본교 논술고사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부담이 없이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표 3> 본교 논술고사와 모의논술고사 난이도의 비교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9	11.3	
보통이다	32	40.0	
그렇다	32	40.0	
매우 그렇다	7	8.8	
합 계	80	100.0	

본교에서 2014년 4월에 실시한 모의논술고사와 실제 전형에서의 논술고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의 약 89%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

다고 답했다. 이는 본교의 모의논술고사와 실제 논술고사의 문항 수준이 유사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논술출제위원회에서 강조하였던 문항의 적정 난이도 설정에 성공적이었음을 반증하는 응답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 여부 평가결과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는 매해 논술고사 지문과 난이도가 고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고교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검증절차를 밟고 있다. 이 검토 과정은 (선행학습)자체평가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정례화 되었으며, 이번에도 논술고사 문제를 검토한 교사로부터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인문계열 I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시문이 어렵지 않고, 특히 영어지문은 쉽게 읽히며 수험생이 재미있었을 것”이라며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통합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매년 이화여대 논술의 일관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인문계열 II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고교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 였다고 평가하였다. 자연계열 해당 교사는 “한쪽에 편협하게 치우쳐 있다기 보다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교과서에 나온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 이라며, “특히 교과서의 여러 단원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차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 이라고 평가하였다.

나. 면접고사

■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 여부 자체분석

2015학년도 본교 학생부 위주 전형 중 면접고사를 실시한 전형은 학생부교과(지역우수인재) 전형, 학생부종합(미래인재, 고른기회, 사회기여자) 전형, 특기자(어학, 수학/과학, 국제학부, 체육) 전형 등이다. 본교에서 실시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면접고사는 일반면접으로서 고교교육의 충실한 이수여부와 발전가능성, 인성,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 여부 평가결과 (수험생)

본교 면접고사에 참여한 99명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접고사를 실시한 99명의 학생 중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총 92명이며, 응답자 중 7명은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하였다.

<표 4> 본교 면접고사 질문의 고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5	5.1	
그렇지 않다	14	14.1	
보통이다	17	17.2	
그렇다	41	41.4	
매우 그렇다	22	22.2	
합 계	99	100.0	

본교 면접고사의 질문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81%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19명의 학생 중 79%의 학생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역의 학교를 다닌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학생들이 면접고사 장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과는 상치되는 것으로서 지역에 상관없이 고교교육과정에 대해 충실하였다면 본교의 면접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5> 본교 면접고사 질문의 제출서류 중심 제시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4	4.0	<p>Detailed description: A pie chart with five segments. The largest segment is purple (40.4%), labeled '그렇다'. The next largest is blue (32.3%), labeled '매우 그렇다'. Other segments include green (13.1%, '보통이다'), red (10.1%, '그렇지 않다'), and a small blue segment (4.0%, '매우 그렇지 않다').</p>
그렇지 않다	10	10.1	
보통이다	13	13.1	
그렇다	40	40.4	
매우 그렇다	32	32.3	
합 계	99	100.0	

본교 면접고사 질문이 학생부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99명의 응답자 중 86%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답변을 하였으며, 이 중 부정적인 답변을 한 14명 중 3명의 학생은 해외고 출신의 학생으로서 영어면접(특기자전형)을 중심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질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6> 본교 면접고사 희망 시간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3분	0	0.0	<p>Detailed description: A pie chart with four segments. The largest segment is purple (57.6%), labeled '7분'. The next largest is green (35.4%), labeled '10분 이상'. Other segments include red (7.1%, '5분') and a very small blue segment (0.0%, '3분').</p>
5분	7	7.1	
7분	57	57.6	
10분 이상	35	35.4	
필요없다	0	0.0	
합 계	99	100.0	

선행학습의 여부와는 별도로 면접고사의 적당한 시험시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93%에 해당하는 학생이 7분 이상의 면접시간을 희망하여 보다 긴 시간동안 본인의 역량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면접시간은 전형 및 모집단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10~20분 내외의 시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여유로운 면접시간 설계의 필요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실기고사¹⁾

라. 수능

■ 전형요소 및 평가

2015학년도 본교 수시 입학전형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전형은 일반(논술)전형, 미래인재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기여자전형이며, 정시 입학전형(정원내)의 전형요소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전형_수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지정 영역

모집단위	응시지정 영역
인문계열 전 모집단위, 의예과(인문), 융합학부 뇌·인지과학전공(인문), 건강과학대학(체육과학부 제외)(인문), 스크랜튼(자유전공)학부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과탐(2과목) ※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예과(자연), 융합학부 뇌·인지과학전공(자연), 사범대학(자연), 건강과학대학(체육과학부 제외)(자연), 스크랜튼(자유전공)학부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2과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비율

모집단위	반영영역		영어	수학		사탐/과탐	과탐
	A	B		A	B		
인문계열 전 모집단위, 의예과(인문), 융합학부 뇌·인지과학전공(인문), 스크랜튼(자유전공)학부	-	25%	35%	20%	-	20%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예과(자연), 융합학부 뇌·인지과학전공(자연), 사범대학(자연), 스크랜튼(자유전공)학부	25%	-	25%	-	25%	-	25%
건강과학대학(인문) (체육과학부 제외)	국어B/영어 중 택1 40%			35%	-	25%	-
건강과학대학(자연) (체육과학부 제외)	국어A/영어 중 택1 40%			-	35%	-	25%

1) 실기고사 전형요소와 관련한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분석은 생략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계산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900점 기준)

$$\frac{\sum(\text{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별 표준점수} \times \text{영역별 반영비율})}{\sum(\text{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times \text{영역별 반영비율})} \times 900\text{점}$$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의 표준점수를 반영함

나. 탐구영역 반영방법 : 본교에서 산출한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며, 가장 우수한 2과목의 합을 반영함

※ 사탐/과탐 모두를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함

2) 일반전형_예·체능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학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실기	계(입시총점)
음악학부	20% (200점)	20% (200점)	60% (600점)	100% (1,000점)
무용과	20% (200점)	40% (400점)	40% (400점)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섬유·패션학부(의류학전공 제외)				
체육과학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비율

모집단위	반영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
		A	B		A	B	
음악학부, 무용과	국어A·B/영어/수학A·B/탐구 중 택3하여 동일 비율로 반영 ※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함						
조형예술대학(의류학전공 제외), 체육과학부	국어A·B/영어/수학A·B/탐구 중 택3하여 동일 비율로 반영 ※ 국어A, 수학A 동시 반영 불가 (사회통합전형은 국어A, 수학A 동시 반영 가능) ※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계산방법(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400점 기준)

$$\frac{\sum(\text{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별 표준점수} \times \text{영역별 반영비율})}{\sum(\text{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times \text{영역별 반영비율})} \times 400\text{점}$$

-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의 표준점수를 반영함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중 최대값이 산출되는 3개 영역을 택하여 동일 비율로 반영함
 - ※ 조형예술대학(의류학전공 제외), 체육과학부는 국어A, 수학A 동시 반영 불가
(사회통합전형은 국어A, 수학A 동시 반영 가능)
- 다. 국어A·B, 수학A·B 반영 시 본교에서 산출한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함
- 라. 탐구영역 반영방법 : 본교에서 산출한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며, 가장 우수한 2과목의 합을 반영
 - ※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함

마.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평가는 필답고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필답고사 문항은 국내 고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기초학업역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출제하였다.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영어, 국어교과, 자연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영어, 수학교과를 출제하여 전공별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판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전형요소 및 평가 방법

계열구분	필답고사			계
	국어	수학	영어	
인문계열 모집단위, 사범대학(인문)	50%	-	50%	100%
자연계열 모집단위, 사범대학(자연)	-	50%	50%	100%
국제학부	-	-	100%	100%

[필답고사 안내]

(1) 출제영역

국어: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범위

수학: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I 까지의 범위

영어: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 국어와 영어의 경우 선다형 및 서술형(1문항)이 출제되며, 수학의 경우 선다형 문항이 출제됨

(2) 시험 시간: 총 100분

2. 본교 입학전형 요소의 고교 교육과정 내 평가여부 분석

가. 본교 전형별 서류평가 현황

■ 전형요소 및 평가 (전형별)

1) 학생부교과(지역우수인재) 전형

· 전형방법	1단계 - 학생부교과 80%	+	서류 20%
	2단계 -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 서류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등을 토대로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업역량 및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학생부종합(미래인재, 고른기회, 사회기여자) 전형

· 전형방법	1단계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 서류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토대로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업역량 및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특기자(어학, 수학/과학, 국제학부, 체육) 전형

· 전형방법	1단계 - 서류 100%		
	2단계 - 1단계 성적 70%	+	면접 30%(국제학부-영어면접)
	* 체육 1단계 성적 80%	+	면접 20%
· 서류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 활동보고서 등을 토대로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특기 관련 학업역량 및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4) 사회통합(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인대상자)전형

·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40%	+	서류 60%(인문, 자연)
	대학수학능력시험 30%	+	서류 35% + 실기 35%(예체능)
· 서류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업역량 및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든 서류평가에서는 대교협이 제시하는 기재금지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항목을 설정하였고 평가 시스템 상에서 해당 수상 및

실적 등의 용어가 암호화되도록 설정하여 전적으로 고교활동 중심의 서류평가를 진행하였다. 대교협이 제공한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작성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hr/>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hr/>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수학</td> <td>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학</td> <td>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국어</td> <td>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td> </tr> </table> <p>*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u>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 (또는 불합격) 처리</u></p> <p>** ‘교외 수상실적’ 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u>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u></p>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5.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input type="checkbox"/>)							

나. 본교 전형의 고교과정 내 평가여부 분석

■ 학생부 평가방식이 선행학습에 미치는 영향 (수험생)

본교 서류평가의 고교 교육과정 내 반영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은 수험생들의 학생부에 대한 내용 4문항과 본교 서류평가에 대한 내용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의 세부 내용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 결과는 <표 8> ~ <표 15>와 같다.

<표 7> 학생기록부 평가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에 대한 문항 내용과 결과

문항 내용	결과
학생부 기재내용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작성되었다.	<표 8>
나의 학생부에는 선행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9>
학생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표 10>
입학전형자료로 요구되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표 11>
본교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가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포함되어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2>
본교 학생부 위주 전형 제출서류에는 활동자료(포트폴리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선행학습 영향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3>
본교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한 대학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선행학습 영향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4>
본교 자기소개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한 공통양식 외 자율문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5>

〈표 8〉 학생부 기재내용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작성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8	3.3	
보통이다	42	17.5	
그렇다	137	57.1	
매우 그렇다	53	22.1	
합 계	240	100.0	

학생부 기재내용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6%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응답을 하여 고교 내에서 학생부 기재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9〉 학생부의 선행학습 관련내용 기재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60	25.0	
그렇지 않다	126	52.5	
보통이다	39	16.3	
그렇다	15	6.3	
매우 그렇다	0	0.0	
합 계	240	100.0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선행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하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4%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학습에 관련된 외부 경시대회를 비롯한 수상실적과 활동을 학생부에 작성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학생부 평가의 선행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33	13.7	
그렇지 않다	85	35.3	
보통이다	67	27.8	
그렇다	41	17.0	
매우 그렇다	15	6.2	
합 계	241	100.0	

학생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77%의 학생이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의 인식이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와 수능능력시험과는 달리 학생부평가는 선행학습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과정 부담정도 (수험생)

수험생들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담에 대해 설문하였다.

<표 11> 제출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5	2.1	
그렇지 않다	24	10.0	
보통이다	78	32.4	
그렇다	80	33.2	
매우 그렇다	54	22.4	
합 계	241	100.0	

입학전형자료로 요구되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의 부담스러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 88% 학생이 보통 이상으로 부담스럽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입시 기간에 수능 준비 외에 서류준비를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문항은 본교 학생부위주 전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표 12> 본교 학생부위주 전형의 공교육 정상화 기여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9	3.8	<p>A pie chart showing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for 'Contribution to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The categories and their percentages are: '매우 그렇다' (13.5%), '그렇다' (36.7%), '보통이다' (40.1%), '그렇지 않다' (5.9%), and '매우 그렇지 않다' (3.8%).</p>
그렇지 않다	14	5.9	
보통이다	95	40.1	
그렇다	87	36.7	
매우 그렇다	32	13.5	
합 계	237	100.0	

본교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가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포함되어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0%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본교의 학생부 평가방식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없이 알려져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 본교 전형방식(포트폴리오 미제출)의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수험생)

<표 13> 본교 학생부위주 전형 제출서류의 선행학습 영향력 저하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2	0.8	<p>A pie chart showing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for 'Reduction of the influence of advance learning'. The categories and their percentages are: '매우 그렇다' (19.3%), '그렇다' (35.7%), '보통이다' (37.0%), '그렇지 않다' (7.1%), and '매우 그렇지 않다' (0.8%).</p>
그렇지 않다	17	7.1	
보통이다	88	37.0	
그렇다	85	35.7	
매우 그렇다	46	19.3	
합 계	238	100.0	

본교 학생부 위주 전형 제출서류에는 활동자료(포트폴리오)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이 선행학습 영향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92%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19명의 학생들은 활동자료가 선행학습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활동자료 외에 선행학습이 필요한 수능 등의 다른 평가방식이 존재하는 한 선행학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본교 제출서류방식(대교협 공통양식)의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수험생)

<표 14> 본교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대학공통양식 활용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력 저하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2	0.8	
그렇지 않다	12	5.0	
보통이다	102	42.9	
그렇다	87	36.6	
매우 그렇다	35	14.7	
합 계	238	100.0	

본교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한 대학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선행학습 영향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94%가 보통 또는 그 이상의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에 대한 이유로는 제출서류가 선행학습과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5> 본교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자율문항 제외에 대한 수험생 부담경감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비교
매우 그렇지 않다	1	0.4	
그렇지 않다	4	1.7	
보통이다	74	31.1	
그렇다	89	37.4	
매우 그렇다	70	29.4	
합 계	238	100.0	

본교 자기소개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한 공통양식 외 자율문항을 추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8%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의 추가문항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생은 추가문항을 통해 지원동기 등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율문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2015년 3월 교육부에서는 학생부 기재 관련 주요사항으로서 교내상 중에서도 주요 교과 중심의 경시대회는 기록하지 않도록 발표할 예정에 있다. 이는 학교 밖 활동을

자제하고 학교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활동 영역에 대하여 사교육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내 경시대회는 학업역량을 판단하는 주요 활동 내역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결정은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교육부의 결정이 전달되면 많은 대학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학생선발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요 학교 활동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이유로 학생부 기록에서 생략되거나 평가에서 배제하는 식의 접근은 선후가 뒤바뀌어 버린, 주객이 전도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Ⅲ. 대학별 고사 문항 공개

1. 논술 고사

[별첨]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I 문제지 [바로가기]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II 문제지 [바로가기]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I 문제지 [바로가기]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II 문제지 [바로가기]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I 해설 및 예시답안 [바로가기]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II 해설 및 예시답안 [바로가기]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I 해설 및 예시답안 [바로가기]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II 해설 및 예시답안 [바로가기]

2. 재외국민 고사

[별첨]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인문계열(영어/국어) 문제지 [바로가기]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연계열(영어/수학) 문제지 [바로가기]

IV. 향후 계획

본교는 논술고사를 비롯한 면접고사, 대학별 고사 출제에 선행학습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결과분석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의 경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설계, 전형평가, 학생선발의 과정에서 전형운영의 절차적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대학 중심의 평가도구 개발에 있어서 고교 과정에 근거한 문항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학별 고사의 경우 수험생이 미리 기출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문항의 수준과 경향성을 파악하고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온오프 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의논술을 실시하여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문항 및 출제 의도, 예시 답안을 안내(설명회 및 안내 자료 배포)함으로써 시험준비를 위한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류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평가과정을 안내하고 전형준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공유하는 노력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적 노력에 더하여 대학별 고사 출제 및 평가에 관한 다음의 내용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우리나라 고교교육 정상화는 물론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보 축적을 통하여, 문서 상의 교육과정만이 아닌, 단위학교에서 실천되는 교육과정 실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성취수준기반 학생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선행학습 영향력 분석 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전형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공교육에 저해되는 전형요소 및 전형방식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3. 출제-평가-학생들의 반응 등을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학입시전형 개발에 힘쓰고자 한다.
4. 대입전형 관련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며, 현대적인 매체활용을 통하여 수험생과의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 정보격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5. 국가교육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입학정책 구현을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윤석현, 안정희, 박희재, 송한나, 안효경, 윤소영(2014). 사교육 영향평가 자체평가 연구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 황준성(2013).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 선행교육 규제 법제화 관련 쟁점 및 향후 방향, **교육정책포럼**. 241, 12-16.